

이덕일의 '역사의 창'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1997년 포브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30년 후면 대학의 커다란 캠퍼스는 유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대학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피터 드러커의 예언이 틀린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만든 교육 현상은 그의 예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 수준의 여러 기업들과 국제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순위를 들기도 민망할 정도로 국제 수준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겉으로 드러난 모든 현상에는 그 근원인 뿌리가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히로부미가 내린 '사립학교령'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재산에 대한 것이다. 그 전까지 우리 민족의 교육 전통은 스승과 학생만 있다면 사랑방 하나만 있어도 학교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한데 이토 히로부미는 막대한 자본이 있는 사람만 교육 사업에 나설 수 있게 규제했다.

자본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 설립자나 운영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8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 및 교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했는데 그 중에는 '성행(性行)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와 미국친일파 이재곤의 눈에 '성행이 불

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물론 반일 민족의식이 있는 애국지사를 뜻하는 것이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이때 사립학교가 각 군에서 설립되었는데 교과서를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술했으므로 나라가 망한 것을 분통하게 여겨 모두 비슷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 일본인은 그것을 싫어하여 이재곤에게 그런 글을 쓴 사람을 제재하도록 칙령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토나 이재곤은 막대한 재산이 있는 친일파들만 교육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만든 것이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완전히 강점한 이듬해인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발표해 교육을 더욱 옥죄었다. 10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14호로 '사립학교 규칙'을 발표해 사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교육을 담당하던 학부(學部)는 내부부 소속의 일개 학부국으로 격하되었다.

광복 후 귀국한 많은 애국지사들은 '이제는 교육구국'이란 모토로 대한제국 시

절처럼 수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그러나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이러한 구국 사업은 일제강점기처럼 억제되었다. 조선통감부 및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 규칙은 문장 몇 개만 수정된 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나라는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막대한 자본이 없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고, 학교의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 등은 모두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교사(敎舍)가 없어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미국과도 아주 다르다. 일제강점기처럼 관에 순치된 대학만 존재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한국 대학들은 국제 경쟁력이 없다시피 한 것이다.

코로나19가 만든 SNS 교육 현상은 이런 관치 교육의 사망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스승과 제자만 있다면 사랑방 하나만으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이전 우리 선조들의 교육 철학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기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난 극복 책임자 찾아야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기대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인물이 후보로 나설지도 궁금하고, 176석 집권 여당을 이끌 선장으로 누가 선택될지도 실망스러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어떤 모양새로 치러질지도 이야기거리다.

정치 불신의 시대에 국민들이 이런 정도의 관심을 갖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관심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고민과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일하는 정당, 시스템 정당을 더욱 확고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은 176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정확히 가능하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OECD조차 우리나라를 '눈에 띄는 예외 국가'라고 지칭할 정도로 선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은 자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내부(內憂)에 더해,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인내심을 잃은 북한마저 상대해야 하는 외환(外患)에도 맞닥뜨리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난국을 극복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통령, 행정부의 국무총리와 1인 3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당 대표의 막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지워질 것인가를 가능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가

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인물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하는 신임 당 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다른 일은 돌아볼 겨를도 없을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명운을 위해서도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국난 극복의 책임자로 국민들 앞에 선보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전과 역량을 갖췄다면 나머지는 다 겹가지일 뿐이다.

역사를 위한, 국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 당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얼마나 역동성이 넘치는 당인지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멋진 일일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대중 정당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모든 자원, 당의 자산을 내세워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회답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의 자제도 별다르지 않다. 국민이 원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정치인이라면 현재의 지지세에 만족해 변수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전 선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당헌 당규로 인한 짧은 임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걸 뛰어넘어 당의 리더십을 곧추세우겠다고 단단히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정치인은 인성(人性)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당이 유력한 당의 자산을 될 인물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을 막아서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피치 못할 이유 때문이라도 그들이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그때 당시는 어디에 있었는가? 국난 극복의 그 어렵던 시절에 당신은 왜 몸을 사렸는가?

의료칼럼

반갑지 않은 손님



이두영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내과과장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더울 뿐만 아니라 반팔 셔츠만을 입고 외출해야 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름 휴가, 피서철, 바닷가... 여름이 되면 설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반대로 언제나 찾아오는 질병 같은 미운 손님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냉방병과 외이도염, 일광 화상 등이다. 이 질병들은 여름철에 그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미운 손님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한때는 '부자들만 걸린다'는 여름철 질병이 냉방병이었지만 요즘엔 누구나 걸

리는 여름 손님이 된 지 오래다. 쉽게 말하자면 냉방병은 여름철 감기라고 할 수 있겠다. 과도한 냉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냉방병은 무기력증과 두통, 기침과 같은 증세를 보이며, 현대에는 에어컨 등 다양한 냉방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발병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냉방병의 발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잦고 심한 기온차로 인한 열 스트레스 및 저온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신진대사의 저하이다. 둘째로 냉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한 레지오넬라증, 마지막으로 환기 부족으로 인한 병원균 및 오염 물질 축적이 그 이유이다.

냉방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더울지라도 무조건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에어컨을 설정하면 안 되며, 지속적인 환기와 에어컨 필터 청소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환기는 4시간에 한 번씩하고, 에어컨 온도는 가능한 24도 이하로 내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에어컨 청소는 2주마다 하는 것을 권장한다.

휴가 후 귀가 간지럽고 아프다면 일단 외이도염을 의심할 수 있다. 여름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물놀이이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계곡이나 바다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바비큐나 수박, 닭백숙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또 외이도염은 눈치 없이 끼여든다. 외이도는 귀에서 고막까지의 관을 일컫는데, 우리가 물놀이를 하게 되면 이 외이도까지 물이 들어와서 습한 환경을 조성하여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심해지면 외이도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귀가 간지럽거나 아픈 느낌이 든다면 누군가 당신의 험담을 해서가 아니라 외이도염일 가능성이 훨씬 크니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심각할 경우 청력 손상이나 신경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만약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선풍기 등으로 귀를 마저 말리는 것이 좋다.

또한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 귀를 함부로 파거나 후비면 안되고, 추운 곳에

서 수영을 하거나 다이빙을 자주하는 경우에는 귀마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물놀이 이후 어린이들의 귀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병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은 이들이면 항상 일광 화상에 대비해야 한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비타민D가 합성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햇볕을 쬐어 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오히려 안하느니라 못하는데,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 1도 화상이고 치명도는 낮지만, 요즘에는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자외선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외선은 피부암도 일으키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하자. 또한 기온이 높거나 햇볕이 강한 날에는 외출 시 상황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일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社說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주민 이용 조화 이뤄야

전남 지역 섬 주민의 삶을 사실상 40여 년 동안 규제해 온 해상 국립공원 관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주민들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불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공원 면적은 신안군 홍도에서 여수 돌산에 이르는 섬과 바다 등 2266.221km²다.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이 보호 정책 위주여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다. 환경부 규제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지역에 전기시설이나 창고 등 소소한 건축물 하나를 올리려 해도 공단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23년 개항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나 첫 삽도 못 뜨

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목록에 오르고 국토교통부마저 의욕을 갖고 추진했으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다 보니 인구 유출이 심화돼 전남 유인도 279곳 가운데 39곳은 50년 후 무인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보호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공존하지 않는 보존은 의미가 없다. 자연은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지만, 주민들의 현재 삶을 과도하게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의 개정이나 보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 조항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차별 방지 대책을

생계를 위해 고국을 떠나 광주·전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4만 명을 넘어지면서 산업 역군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어렵거나 도태되었을 산업 현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동남아시아인 A(25)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전남의 한 김 양식장에 취업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가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받는 월급은 170만원. A씨는 고된 바닷일보다 사장과 그가 속의 폭언·폭행이 더 겹겹이 힘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때리며 'XX놈아, X새끼야'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이양식장에 취업한 외국 노동자 B(23)씨도 열악한 처우와 폭

력에 시달렸다. 사업자 측이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을 숙소로 제공하거나 하면 휴전화 사용을 막고, 방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는 바람에 샤워기 물을 마셔야 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목포 지역 한 어가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이 3개월간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긴 채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전남의 경우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면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다. 한데 열악한 처우와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터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근로 감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손꼽힌다. 미적분법을 창시했으며, 물리학에서 뉴턴 역학 체계를 확립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천재인 그도 유일하게 실패한 분야가 있으니 주식 투자다. 1720년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후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투기와 투자는 똑같이 이익을 추구한

다. 다만 투기는 생산 활동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 사용된 바 있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기존 주택에 살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성'이 간혹 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 1도 화상이고 치명도는 낮지만, 요즘에는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자외선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투기와 투자는 똑같이 이익을 추구한

투기 방어기제

동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도박과 같은 과도한 이익을 바라다

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 사용된 바 있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기존 주택에 살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사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성'이 간혹 되게 되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일광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대부분 1도 화상이고 치명도는 낮지만, 요즘에는 오존층 파괴로 인하여 자외선의 강도가 강해졌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요즘 아파트 투기도 정상화 완전히 벗어났다. 건설업체는 저렴한 도시의 자투

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합리화'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투기를 정당한 투자로 합리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우려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해외 부동산 세계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나라도 실거주 위주로 세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함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를 대거 높이고 철저한 과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	---